

# ‘문제풀이 박사’ 뽑는 입시제도 바꾸자

글 | 이정호 \_ 동아사이언스 기자 sunrise@donga.com

“어려운 과학문제를 잘 풀어야 영재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는 뒷전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입시문제를 한번 보세요.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 학습을 안 하면 풀 재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변미정(35·경기도 분당)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아들에게 영재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최근 받았지만 이를 키워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살펴 본 과학고 입시요강과 시험문제는 변 씨에게 일종의 충격이었다. 막연히 과학영재가 진학하는 곳인 줄만 알았던 과학고 교문 앞에는 올림피아드 입상 경력과 난이도 높은 입시문제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영재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유행처럼 번지지만 막상 영재성을 계발하고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하다. 과학영재를 키우는 과학고에 들어가려면 엉뚱하게도 영재성과 별 관련 없는 문제풀이식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이 틈을 비집고 선행 학습으로 무장한 사교육이 바람처럼 파고들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과학영재 육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입시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다.

## 과학고 입성의 ‘열쇠’는 선행 학습

경기도 일산 백마동의 입시학원가의 G학원 외벽에는 ‘과학고 50명 합격’이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가 힘차게 펄럭인다. 최근 입시학원들의 기본 홍보전략은 과학고 입학생수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다. ‘과학고=명문고’라는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탓이다. 과학고 지망생들은 학원에서 무슨 공부를 할까. 과학고생들은 자신들이 창의력 증진과 관련 없는 선행 학습에 몰두했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과학고 2학년생인 김 모군은 “입시에 대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공부했다”며 “창의성 교육이 스며들 여지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선행 학습은 과학고 수업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는 수준이다. 같은 학교의 또 다른 김 모군은 “학원에서 중학교 내신을 관리받는 것은 물론 과학고에 가서 해야 할 공부까지 미리 훑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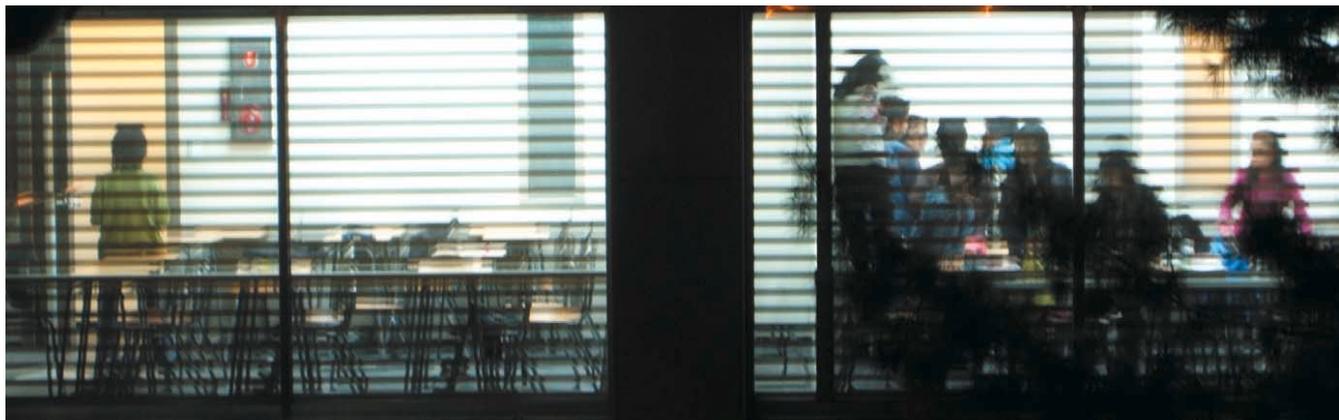
선행 학습은 과학고 입시의 변수인 과학 올림피아드와 경시대회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고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탓에 학원 수강은 올림피아드와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필수 코스로 인식된다. 과학영재들이 서로 실력을 겨루며 우의를 다져야 할 올림피아드는 사실상 입시의 전초전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 명문대 입학열기에 ‘선행 학습’ 비판 실증

과학 원리 탐구와는 거리가 먼 선행 학습에 학부모와 학생이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선행 학습이 과학고 입시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친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인 유 모씨는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이 있으면 비슷한 내신 수준의 학생이 겨루는 과학고 입시에서 유리하기 마련”이라며 “이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선행 학습을 시킨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 내면에는 과정이야 어찌됐든 과학고에 일단 진학하면 명문대 입학은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인식이 도사리고 있





과학고를 중심으로 불던 특목고 열풍은 최근 자립형사립고까지 번지고 있다.

다. 실제로 과학고의 명문대 진학률은 상당히 높다. 2학년 때 실시하는 과학우수자 전형에 통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등에 상당수가 진학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다.

명문대 입학이 '지상 과제'인 현실은 과학고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을 공염불로 만든다. 학부모와 학생의 1차 관심사가 대학 입학인 상황에서 “제대로 과학영재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먹히겠느냐는 얘기가. 과학영재 교육이 과학고의 전적인 설립 목적은 아니라는 견해까지 나온다. 서울의 한 과학고 3학년 부장 교사를 맡고 있는 심 모씨는 “과학고는 영재교육뿐만 아니라 수월성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대입 문제를 외면할 수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 체계적인 사고능력 측정하는 토론식 입시 시급

과학고 선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과학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과학고 물리 교사인 홍 모씨는 “입시제도는 영재교육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과학고가 요구하는 뛰어난 중학교 내신 성적과 고난도 구술시험이 많은 맹점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씨는 “지나치게 엄격한 중학교 내신 기준을 완화해 많은 학생들이 과학고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과학고에서 평가 요소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 시행해 지원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사들은 과학고별로 지필시험을 통한 입학교사를 시행하

면 선행 학습 열기가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풀이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지필시험이 과학적인 사고능력 측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필기시험이 지금보다 더 강한 선행 학습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다. 필기시험을 통한 과학영재성 측정은 역시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거론되는 대안은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과학경진대회의 활성화다. 청소년 물리탐구 토론대회가 그 예다. 국내와 해외에서 우수 학생들이 자웅을 겨룬다는 측면에서는 여느 경시대회와 비슷하지만 문제풀이 능력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과학영재교육업체 지니움의 서예원 원장은 “이 같은 대회는 과학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두고 양 진영이 공방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참가자가 해당 문제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이해하는지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학교 발명반이 겨루는 대회의 수상경력을 전형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풀이 훈련 중심의 선행 학습의 입지가 줄어들면 ‘과학수재’는 아니지만 ‘과학영재’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드러날 것이란 얘기가. 이미 지난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은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를 발굴하는 데 영재선발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연구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어쨌든 선행 학습이 맹위를 떨치는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⑤



글쓴이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고려대학교에서 과학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